

brilliant memories: 동행 #2

김승영 작가와 그의 이야기



“Where are you?”

김승영 작가, 리베로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제가 타자와 만나는 방법이고 사회와 만나는 방법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타자와의 소통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늘 보다 자유로운 저를 꿈꾸면서 가슴 설레며 작업을 해왔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가로서의 삶의 과정에는 늘 제 리베로와 함께 해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창 밖으로 미끄러지는 풍경의 속도는 작품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 수 없이 재료를 구하고 작품을 조립해서 다시 미술관에 설치하고 철수를 해왔죠.

그렇게 항상 저의 곁을 지켜준 차 리베로에 남다른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존재로 느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가로서의 삶을 지탱해준 고마운 동반자니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게 해 준 저의 리베로를 작품으로 남기고 싶고, 그래서 이번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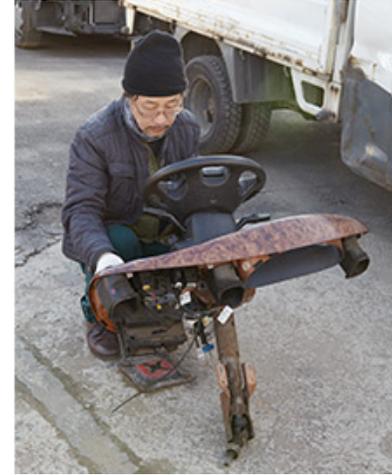


김승영 작가와 리베로의 추억, 그리고 이별의 순간

작가 김승영



김승영 작가는 설치와 영상 등이 어우러진 미디어 설치 작업으로 관람객들의 공감각을 자극해 사유의 세계로 안내하는 작업을 합니다. 소통과 기억이라는 테마를 설치작품으로 연출하는 작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찰나적 만남과 기다림, 잊고 있는 것과 기억하는 것 속에 위치한 살아있는 존재들의 의미를 생생하게 연출합니다.



일상에서 발견되는 자연적 요소와 사물을 이용해 공간과 어우러진 미디어 설치작업을 보여주는데 이 작업들은 정신적이고 사유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동양적인 감수성을 불러일으켜 감상자를 명장적인 공간으로 이끌어줍니다.